2014년07월10일년 수능(윤리와사상) 필기시험 기출문제 답안

【1과목 : 19문제】 과목구분없음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④	①	⑤	①	①	①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②	⑤	⑤	③	⑤	⑤	②	②	④	

전자문제집 CBT 홈페이지 : https://www.cbtestpro.kr

최신 수정 자료와 해설(오타・오답・규정변경)은 cbtestpro.kr 웹 및 앱에서 확인하세요.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출제기관에 있습니다. cbtestpro.kr 및 관련 앱에서는 편집 및 재구성 작업만 하였음을 밝힙니다.

CBT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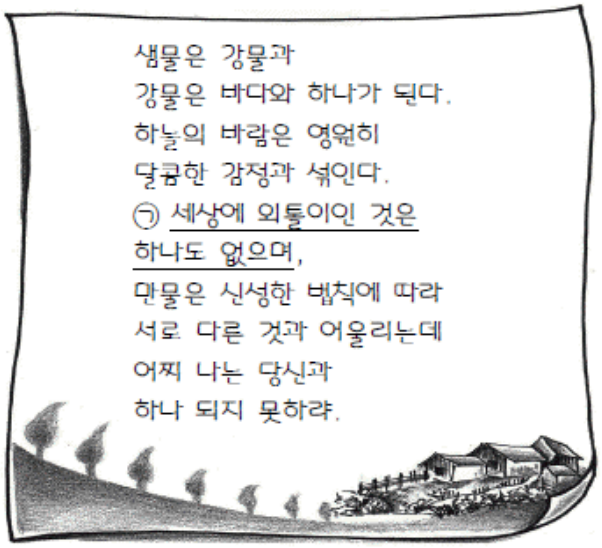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워 시험 합격을 노려라!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1과목】 과목구분없음 (19문제)

1. (ㄱ)에 나타난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본능적 욕구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존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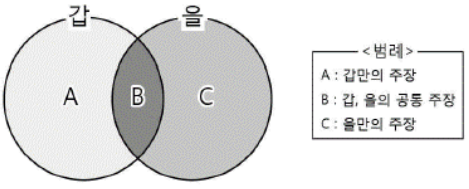
② 도구를 사용하여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존재이다.

③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여 자아실현을 이루는 존재이다.

❹ 타인과 정서적 유대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이다.

⑤ 삶의 편익을 위해 과학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는 존재이다.

2. (가)의 갑, 을 사상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 사람의 마음은 영명(靈明)하여 모든 앎이 구비되어 있고, 천하의 사물에는 이(理)가 내재해 있다. 다만 그 이치를 제대로 궁구하지 못한 까닭에 내 앎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내 앎을 온전히 이루려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 을: 마음 밖에 물(物)이 없고, 마음 밖에 일[事]이 없으며, 마음 밖에 이가 없으며, 마음 밖에 선도 없다. 격물은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함을 제거하여 본체를 온전히 하는 것이다. '격(格)'은 바로잡음이고, '물(物)'은 내 마음이 닿는 일이다.
(나)	

① A : 앎과 실천에는 선후의 구분이 없다.

② A : 사물의 참모습을 깨달아 사덕을 생성해야 한다.

❸ B : 사욕을 극복하고 타고난 본성을 보존해야 한다.

④ C : 지식의 확충을 통해 양지(良知)를 실현해야 한다.

⑤ C : 앎과 실천은 별개의 것으로 병행하여 발전해 나간다.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깨달음의 길은 넓고 확 트여 걸림이 없고 범주가 없다. 무엇에 기대는 것이 아주 없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음이 없다. 이 때문에 일체의 다른 가르침이 모두 깨달음의 가르침이요, 온갖 학파들의 주장이 옳지 않음이 없으며, 온갖 법문이 다 진리에 들어갈 수 있다. 만약 한 쪽에 치우쳐 고집한다면 곧 미진함이 있게 된다.

<보 기>

ㄱ. 회통(會通)을 위해 시비를 명확하게 구별한다.
ㄴ. 일심(一心)을 깨달아 이원적 분별의식을 버린다.
ㄷ. 세속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 수행한다.
ㄹ. 고정된 자아의식에서 오는 독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❹ ㄴ, ㄹ

⑤ ㄷ, ㄹ

4. (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성인(聖人)은 해와 달과 나란히 서서 우주를 겨드랑이에 끼고 만물과 하나가 된다. 그것들을 어지럽고 혼돈된 상태 그대로 놓아두면서 귀천의 구별을 짓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몸을 아끼지 않고 일에만 힘을 쓰지만 성인은 우둔하고 어리석은 것만 같다. 오랜 세월 동안 만물과 섞여 지내지만 일관되게 순수성을 유지한다.

❶ 외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② 타고난 내면적 도덕성을 확충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다.

③ 만물이 평등함을 깨달아 겸애(兼愛)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④ 인의(仁義)를 실천하여 자연적 본성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⑤ 지속적인 지식의 탐구를 통해 제물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5. 다음 서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역사는 절대 정신이 스스로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이며, 인간의 이성이 점차 자기를 실현해 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주관적 정신의 단계에서 객관적 정신의 단계로, 마지막에는 주관과 객관을 동일화하는 단계, 즉 정신 자신의 완전한 자기 인식의 단계에 도달한다.

<보 기>

ㄱ. 국가는 개인들의 자발적 계약에 의한 산물이다.
ㄴ.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ㄷ. 국가는 최고의 인륜으로서 절대 목적 그 자체이다.
ㄹ. 개인은 국가의 일원으로서만 참된 존재의 의미를 지닌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❺ ㄷ, ㄹ

6.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갑, 을) [3점]

> 갑: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들 사이에 불신과 투쟁만이 존재할 뿐, 보편타당한 도덕 원리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정부를 세우고 법과 규범을 제정한다.
> 을: 태어날 때 인간의 의식은 백지와 같으며, 자연 상태란 자연법이 지배하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한다. 다만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길 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며, 국가의 역할은 오로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보 기>

		통치자에게 절대권력을 부여하는가?	
		예	아니요
개인들의 동의에 의해 국가가 성립되는가?	예	A	B
	아니요	C	D

❶ A, B
② A, C
③ B, C
④ C, D
⑤ D, B

7. 갑, 을의 관점에서 <사례> A의 행위에 대한 입장과 판단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순서대로 입장, 판단근거)

> 갑: 사욕을 이기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곧 인(仁)이다. 하루만이라도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모두 인으로 귀결될 것이다.
> 을: 도를 잘 행하는 사람은 백성을 현명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게 만들었다. 통치자는 다스림 없이 백성을 다스리고, 억지로 일을 꾸미지 말며, 욕심을 내지 않아야 한다.
>
> <사례>
> A는 예로써 부모를 섬겨야 한다는 생각에 부모의 삼년상을 치르고, 자녀의 혼례는 전통적인 의식과 절차에 따라 경건하게 진행하였다.

❶ 갑 : 찬성, 친소에 따른 사랑을 실천하였기 때문이다.
② 갑 : 반대, 사치와 낭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③ 갑 : 반대, 소박한 자연의 덕(德)을 해치기 때문이다.
④ 을 : 찬성, 예를 통해 인간다움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⑤ 을 : 반대, 의로움보다 이로움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8. 다음을 주장한 불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 단지 견성(見性)의 문(門) 하나를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네. 말로 분별하면 수만 가지가 있지만, 이치에 들어서면 하나로 돌아가리오.
> ○ 깨달음은 본래 형상이 있는 보리수나무와 같은 것이 아니며 밝은 마음 또한 실제와 같은 형상이 없네. 본래 마음인 불성은 항상 청정한데 어디에 티끌과 먼지가 묻으리오.

❶ 본성을 직관하여 단박에 깨우쳐야 한다.
② 바라밀을 실천하여 불성을 형성해야 한다.
③ 경전 공부를 통해 깨달음에 도달해야 한다.
④ 사회와 분리된 개인의 해탈만을 추구해야 한다.
⑤ 모든 현상의 주체인 마음과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

9.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도덕성은 판단되기보다는 느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끼는 공감 능력이 도덕의 원천입니다.
> 을: 감정에 근거한 도덕적 행위는 보편적일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행동은 의무 의식이 동기가 된 행동, 즉 도덕 법칙에 대한 자발적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보 기>

ㄱ. 갑은 이성을 도덕적 행위의 원동력으로 보았다.
ㄴ. 갑은 유용성을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중시하였다.
ㄷ. 을은 자연적 경향성에 따른 행복의 추구를 중시하였다.
ㄹ. 을은 도덕적 행동의 근거를 실천이성의 명령에서 찾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❹ ㄴ, ㄹ
⑤ ㄷ, ㄹ

10.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 병의 공통된 주장으로 옳은 것은?[3점]

① 현세보다는 내세에서의 삶을 우선시해야 한다.
② 종교적 수행과 사회적 실천은 분리되어야 한다.
③ 서양 세력에 의지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❹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차별 없는 평등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⑤ 성리학적 전통 질서를 회복하여 민족 주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11. 다음 조선 시대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이기(理氣)는 원래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까닭에 마치 일물(一物)일 것 같으나, 그것이 서로 다른 까닭은 이는 무형(無形)하고 기는 유형(有形)하며 이는 무위(無爲)하고 기는 유위(有爲)하기 때문이다. 이는 무형하고 기는 유형하므로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되는 것이요, 이는 무위하고 기는 유위하므로 기가 발하면 이가 그 위에 타게 된다.

<보 기>

ㄱ. 사단과 칠정의 연원은 같은 것인가?
ㄴ. 이와 기는 사물에서 분리될 수 있는가?
ㄷ. 사단은 성(性)이고 칠정은 정(情)인가?
ㄹ. 이는 발하는 까닭이고, 발하는 것은 기인가?

① ㄱ, ㄴ
❷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갑, 을의 대화에서 (ㄱ)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하고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 기구의 축소, 세금 감면, 복지 제도 축소 등을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 을: 정부가 공공 서비스, 대중 교육, 적극적인 과세 등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이를 통해 빈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사회 계층 간의 상호 불신과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갑 : 제 생각에 당신은 [㉠] 하고 있습니다.

① 정부 실패의 가능성을 과도하게 강조
② 분배의 형평성보다 성장의 중요성만을 강조
③ 국가에 의한 사회 복지 실현의 중요성을 간과
④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사익 추구를 지나치게 강조
❺ 정부의 개입이 시장의 자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간과

Download on the App Store 전자문제집 CBT(App Store) :[다운로드]
GET IT ON Google Play 전자문제집 CBT(Google Play) :[다운로드]

13. (가), (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색(色)이 공(空)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모든 사물은 그 실상이 공(空)이다. 거기에는 생겨남도 없어짐도 없고,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으며, 늘어남과 줄어듦도 없다.
> (나) 삶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의지에 의해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의지는 세계의 모든 현상의 밑바탕에 놓여 있으며 세계의 내면적 본질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의지는 맹목적인 것으로 그 욕망은 끝이 없다.

① (가)는 세상이 공허하다는 허무주의를 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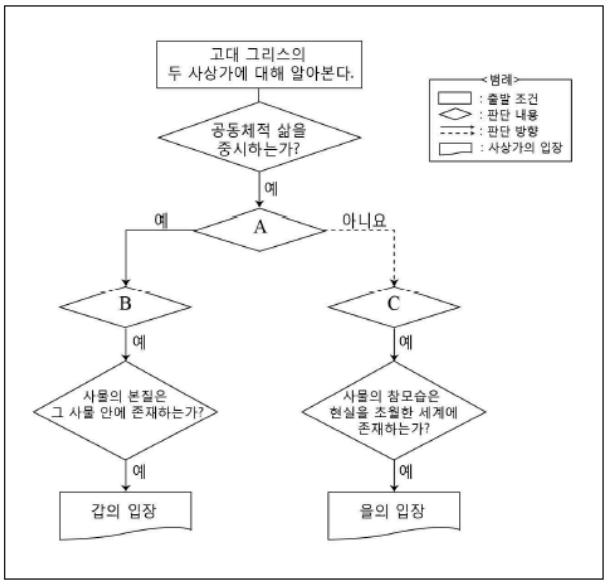
② (가)는 무아를 자각하여 무명(無明)에 도달할 것을 강조했다.

③ (나)는 합리적 인식을 통해 삶을 통찰할 것을 주장했다.

④ (나)는 이성을 통해 맹목적 의지를 극복할 것을 강조했다.

❺ (가), (나)는 인간의 삶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14. 그림의 A, B, 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A: 아는 것은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지는가?

② B: 선의 이데아를 깨달은 통치자가 다스려야 하는가?

❸ B: 품성적 덕을 갖추기 위해 실천적 지혜가 필요한가?

④ C: 도덕적 선악 판단의 근거는 감각적 경험에 있는가?

⑤ C: 도덕적 행위에서 아는 것보다 의지의 역할이 중요한가?

15.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쾌락은 신체 영역에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는 동시에 정신적 영역에서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참된 쾌락은 헛된 감각적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 쾌락이다.
> 을: 인간은 쾌락의 총량을 최대화하고 고통의 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동한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행위에 의해 생겨날 쾌락과 고통의 양이다.
> 병: 우주 만물에는 보편적인 이성이 있고 인간 개개인의 본성에도 이러한 이성이 있다. 우리가 필연적 인과 관계와 자연법칙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 개개인의 이성은 보편적 이성과 하나가 된다.

① 갑은 욕구에 초연한 정념 없는 상태를 추구하였다.

② 을은 행복 추구에 있어 쾌락의 질적 차이를 강조하였다.

③ 병은 자연스러운 정념조차도 거부할 것을 주장하였다.

④ 갑, 을은 사회적 참여를 통한 공적인 삶을 중시하였다.

❺ 갑, 병은 검소하고 절제된 삶의 방식을 중시하였다.

16.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 계약설의 자연 상태에 해당한다. 이 상황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모르며 누구도 자신의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이나 심리적 성향도 모른다. 정의의 원칙들은 무지의 베일 속에서 선택된다. 그럼으로써 정의의 원칙들은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① 결과의 불평등은 절차가 공정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

② 개인의 선천적 능력에 비례하여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

③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본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④ 무지의 베일 속에서 사람들은 이타심을 바탕으로 협동한다.

❺ 불평등은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 허용될 수 있다.

17.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신의 존재는 다섯 가지 방식으로 논증될 수 있고, 초월적 진리는 계시와 신앙을 통해 알려진다. 인간의 행복은 오직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을: 신은 곧 자연이며, 자연은 필연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실체이다. 인간이 우주의 인과 질서를 인식할 수 있다면, 최고의 행복을 누릴 것이다.
> 병: 오직 신앙만이 진정한 '나'를 인식할 수 있는 길이다. 인간은 누구나 '신 앞에 선 단독자'이며, 신과 마주 대하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회복해야 한다.

① 갑은 신앙과 이성을 대립적인 관계로 간주하였다.

❷ 을은 이성적 관조를 통해 평온한 행복을 추구하였다.

③ 병은 합리성에 근거한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였다.

④ 갑, 을은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금욕적인 삶을 강조했다.

⑤ 을, 병은 신을 실존을 통해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로 보았다.

18. 표는 서양의 어느 사상가를 상대로 한 가상 설문 조사 결과이다. (가)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번호	질문	응답	
		예	아니요
(1)	의회 활동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을 추구하는가?	V	
(2)	국가의 모든 권력 기구들을 철폐해야 하는가?		V
(3)	(가)	V	
(4)	평등한 사회 건설을 위해 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하는가?		V

① 공정한 분배를 위해 사유 재산을 철폐해야 하는가?

❷ 폭력 혁명을 부정하고 점진적 사회 개혁을 추구하는가?

③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부정하는가?

④ 역사적 필연성에 따른 자본주의의 붕괴를 주장하는가?

⑤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의한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가?

19. 서양 사상가 갑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여성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의 의무를 기꺼이 짊어지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과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다른 관점들까지도 포함하여 판단한다. 우리는 따뜻한 배려와 책임감을 강조하는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 <문제 상황>
>
> 자유를 찾아 남한 사회에 온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점차 증가하여 국내 누적 수가 무려 2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사회에서 취업, 교육, 육아, 결혼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보 기>

ㄱ. 포용적인 태도보다 공정성을 추구해야 한다.
ㄴ. 개인의 독립성보다 사회적 관계성을 중시해야 한다.
ㄷ. 타인들에 대한 책임감보다 규칙 준수를 강조해야 한다.
ㄹ.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소수자와의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❹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인간은 살려고 하는 생명에 둘러싸인, 살려고 하는 생명이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 또한 살려고 애쓴다는 것을 자기 안에서 체험한다. 윤리적 인간은 모든 생명을 도와주라는 명령에 따르고, 살아 있는 어떤 것도 해치지 않는다. 인간에게 선이란 생명을 유지하고 증진하며 고양시키는 것이고, 반면 악이란 생명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① 편협한 인간중심주의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②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고 두려워하며 사랑해야 한다.

❸ 인간은 자연의 주인으로서 모든 생명을 보전해야 한다.

④ 모든 생명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⑤ 모든 생명체는 가치의 위계에 따라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